

제목 : 오순절 성도의 기도

본문 : 행 2:1-4

시작찬송가 : 363(새337), 483(새539), 484(새365)

헌금찬송가 : 268(새505), 434(새384), 512(새315)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전심했습니다. 이 때 모인 제자의수가 약 12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권능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신약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기도'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도

- 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충만함과 더불어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행 1: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②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행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욥 2:28-29 그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③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목적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그들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 임재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행 1:14-15(상 여제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반절) 수가 한 일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2. 교회를 탄생시킨 기도

- 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전도로 이어졌고, 이는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임한 대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소식을 만민에게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행 2:37-38(상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행 2:41-42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

- ② 120문도의 기도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이 인간 안에 임재하시는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구원 사역의 마지막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흥미롭습니다. 가끔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정말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저를 위한 많은 기도의 영향입니다. 제가 술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연설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악수를 하려고 서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을 지나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매번 연설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오늘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이런 말보다 '대통령님, 저희 동네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대통령님, 저희 동네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들의 대통령의 힘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들이 얼마나 제 삶에 큰 도움을 주었는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큰 도움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서 좋은 날도 있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매일 기쁨이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신앙을 바탕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몇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은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 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만 합니다. 어떤 결정은 준비된 결정이지만 어떤 결정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안건들이 많은 경로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로 오게 되고 대통령은 그 안건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원칙 없이는 절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이 되는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세계에서도 그렇고 현실세계에서도 그렇듯이 사람들은 좋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나에 따라 그 사람이 인기가 올라갈 수도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다 해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원칙은 영원히 지켜집니다. 제 신앙은 제가 집무실에서 생활하면서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함께 일한 사람들과 제가 섬긴 국민들에게 그 원칙을 가지고 제 뜻을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원칙이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라는 기준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19명의 청소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3,000여 명의 시민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진짜 악'으로 밖에는 설명될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악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 보편성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말씀 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1953년에 누군가가 '한반도에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국가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1,000불도 안 되는 GNP에서 24,000불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모든 이들이 '우리처럼 생기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 시민이 될 수 있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I'm not surprised!)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크 국민들도 자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허물고 자유의 길을 택하는 것을. 자유는 불가피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 신앙은 저로 하여금 모든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북한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을 통해 삶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끔찍하였습니다. 가족이 찢겨지고 노동수용소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끔찍한 일들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온 것은 제 신앙 때문입니다. 모든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제 신앙으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바라볼 때, 저는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동족들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1.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3.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 뉴욕 할렐루야 대회와 한국교회 8.15 성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5. 공동기도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